

人間資源開發과 高等敎育의 專門性

孫 泰 根
(建國大 敎育學科 助敎授)

오늘의 우리 나라 産業社會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專門人들이 産業의 質的 高度化를 이루는데 크나큰 役割을 감당하는 成長類型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高等敎育의 專門性을 구비한 人間資源의 需要가 가속적으로 증대해 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現象이라 할 수 있다.

I. 序 論

敎育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敎育은 그 時代에 따라 個人이나 社會 그리고 國家가 요구하는 人間像을 具現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敎育을 이해하려면 敎育的 要求가 제기되는 그 時代와 社會的 背景을 把握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人間資源開發과 高等敎育의 專門性을 고찰해 보려면 역시 現代 우리 나라의 經濟社會의 發展背景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0年代의 박력 있는 開發計劃과 그 實踐은 70年代에 걸쳐 우리 나라의 經濟成長을 눈부시게 이룩하게 하여, 이제는 우리도 世界 先進隊列을 향하여 발돋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80年代에 들어와 있는 우리 産業은

그 어느 때보다도 國際的 競爭이 치열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고급 두뇌인력의 量産體制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成長戰略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의 産業은 거의 단순 勞動力에 의존한 成長類型이었지만 이제 그 限界點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不實效果를 낳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高度의 知識과 技術을 갖춘 專門性과 資本을 主軸으로, 우리 나라 産業의 質的 高度化를 성취하는 成長 패턴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高級 人力의 確保가 시급한 課題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大學院敎育을 포함한 高等敎育機關을 有效적결하게 擴充하고 敎育의 內質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專門家들은 우리 나라가 앞으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이룩하게 될 때, 1991년(가서는 1975년 기준 不變價格으로 國民總生産이 4배에 도달

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規模의 팽창은 韓國의 산업구조를 先進國型으로 高度化할 것이 명백하다. 한편 경제활동 人口는 年平均 3%씩 증가하여 1991년에는 약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專門家들은 韓國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勞動生産性의 提高가 필요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는 고용구조의 資質의 上向的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촌의 유휴노동력과 潛在失業者를 勞動生産性이 높은 2,3차 산업으로 흡수해야 하며 農業部門의 生産性도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날의 고용구조는 크게 高度化되어 專門的 科學·技術人力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할 것이다. 한 예로, 두뇌산업과 정보산업 등의 확충에 따라 高等教育의 專門性을 요하는 人力의 수요는 加速的으로 增大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社會經濟的인 發展背景을 통찰해 볼 때, 우리는 과거와 같은 傳統的 農耕社會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未來社會가 아무리 치열한 競爭이 예상되는 高度의 產業社會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生存을 위하여 高度의 專門的 知識·技術社會 建設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해결방법은 未來社會를 위하여 모든 國民에게 適應力을 길러 주고, 급변하는 社會에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創意的이고 問題解決을 잘하는 精神機能을 배양하는 人間資源開發(human resources development)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韓國의 中等교육은 모든 分野에 있어서 人間資源開發의 側面에서 자기 分野의 專門性을 추구할 수 있는 知識人과 技術人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에서는 先進國의 한 모델로서 歐美의 中等교육 발전과정을 人間資源開發의 專門性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人間資源開發과 高等教育의 發展過程

中世紀의 大學은 일반적으로 醫學을 위주로 교육한 Salerno大學, 法律을 중심으로 한 Bologna

大學, 그리고 宗教를 土臺로 교육한 Notre Dame 神學校 등이 자기 그 당시의 社會가 요구한 人間資源을 職業的 또는 專門的으로 개발했다. 이들 大學에서 졸업하고 社會에 진출한 사람들은 의사, 법률가, 종교가(신부), 교수를 비롯해서 문학가, 예술가와 음악가 등이었다. 人間資源開發의 側面에서 볼 때 大學教育은 中世紀 全期間을 통해서 거의 宗教一色으로 치중하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發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文藝復興과 宗教改革은 大學教育에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大學教育에서 始初에는 3대 科目으로 Trivium 즉 文法, 修辭學 그리고 論理學 등을 가르쳤고, 後에 4대 科目으로 Quadrivium 즉 算術, 天文學, 幾何와 音樂 등을 가르쳐 모두 7대 自由科目을 이수하면 그 당시엔 소위 教養人의 資質을 갖추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文藝復興과 宗教改革 이후에 人間資源開發은 文藝와 科學에 관한 教育을 중점으로 하고 中世紀의 宗教的인 教育課程을 축소했던 것이다. 文藝란 소위 라틴어, 희랍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한 古典文學과 그 글들을 통한 演극, 미술 그리고 音樂들을 말하는 것이며, 科學은 주로 物理學, 論理學, 倫理學, 政治學과 社會學 등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18世紀 上半期경에는 大學生들이 주로 Locke, Newton 그리고 Copernicus理論에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傳統的인 古典的 선비사상(Scholasticism)은 이미 主流에서 퇴색하기 시작했다. 사실 Newtonian의 經驗主義(empiricism)哲學은 심지어 神學에서 宗教學을 발전시킬 만큼 효과적이었다. 18世紀 中期는 계몽주의思想이 팽배하여 人間資源開發의 넓이와 그 깊이는 더욱 확대되었다. 한 例로서, 그 당시 美國의 Benjamin Franklin총장(펜실바니아大學校)은 大學教育에 科學과 實際的 研究를 더 많이 강조하였다. 그 후 公共의 行政學, 農學, 機械術, 文學, 現代言語, 해부학, 醫學과 化學 등을 교육과정에 넣도록 권장하였다.

19世紀 初期에는 美國의 경우 시민적인 主體 教育과 더불어 自主의 精神의 함양을 위주로 하는 人間資源開發의 教育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기간은 學生들로 하여금 社會를 인식하고 自己實現의 目標을 성취시키기 위한 高等教育을 강조한 時期라고도 볼 수 있다. 19世紀 후반기부터 美國은 시민들에게 開拓者의 思想을 더욱 복돋워 주고, 방대한 美國의 自然資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高等教育의 기여를 바랐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사람들은 전통적 敎養敎育 內容과 병행해서 현실에 적절한 實際敎育 內容을 高等教育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要求에 발맞추어 美國의 高等教育은 農村地方 大衆 속까지 普遍的 大學敎育의 土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實例로 1862年 이후부터는 미국의 모든 農村地方에 公立로 Land-grant College 혹은 University를 設立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大學敎育의 實際의인 혜택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美國사람들은 社會發展 추세에 맞추어 自己開發과 實現을 위해 새로운 고등교육의 要求를 충족할 수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 보면, 1960年代의 하버드大學校의 總長이었던 Clark Kerr는 「大學敎育의 活用性」에 관한 그의 著書에서 현재 大學이 당면하는 세 가지 새로운 變化의 局面을 成長, 學術內容의 轉換과 社會生活과의 關聯이라 보았다.

결국 人間資源開發과 高等教育의 專門性을 고려할 때 오늘날 韓國에 있어서도 Clark Kerr총장이 지적한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筆者는 學術內容의 전환에 더욱 強調點을 두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高等教育 學術內容의 轉換은 우리 나라가 1990年代 이후에 다른 先進國들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Ⅲ. 高等教育의 專門性

오늘날 우리 社會는 發展段階로 보아서 先進國型인 後期産業社會를 指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나라 사람들의 意識構造나 行動科學面을 관찰해 볼 때는 아직도 農耕社會의 水準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先進國의 社會發展 過程上的 페턴과 오늘날 우리 나라의 社會發展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現代社會는 高等敎

育의 量的 팽창도 불가피하지만 敎育의 專門性이 더욱더 要請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선 高等教育의 專門性和 專門化에 대한 意味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大學敎育에서 專門性和 職業性간의 차이는 中世大學 때부터 機能上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다. 傳統的으로 高等教育의 專門性은 形式敎育과 계속적인 研究를 要求하는 세가지의 專門職 즉 神學, 法學과 醫學 등에 치중했었다. 그 以外的 모든 職業들은 現職에서의 훈련 내지 학습으로 이루어지므로 성격상 難易度로 보아서는 下位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農民들이나 商人 그리고 製造人들은 職業性을 추구했고, 神學大學, 法科大學과 醫科大學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들의 專門性을 추구했던 것이다. 또한 古典의인 專門性은 人間성을 탐구하는 人間中心의 敎養科目을 이수하는 것을 매우 중시함을 특징으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概念에 의한 專門性은 한정된 物질들을 탐구하고 人間이 그것들을 탐구해서 利가 되는지 또는 害가 되는지에 관한 의문은 별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美國의 경우 이러한 差異點은 産業化 時代인 19世紀 후반기에 이미 高等教育 일반에 걸쳐 개혁되었던 것이다. 즉, 인구증가와 더불어 산업화되어 가는 社會가 高等教育의 專門化를 위하여 敎授職을 비롯해서 점차적으로 大學敎育에 들어오는 모든 職業人(商人, 新聞人, 製造人, 化工人, 敎職人, 發明人, 美術人, 音樂人, 營養管理인, 藥製人, 科學的農民, 技術人)들에게 法科, 神學科 혹은 醫學科 學生들과 꼭 같은 專門性을 갖추어 주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들의 專門化를 추구할 수 있게끔 同等的 研究의 土전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民主主義的 普遍化敎育의 원칙하에서는, 이러한 高等教育의 專門性이 高等教育制度에 있어서 학부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의 專門大學院 碩士와 博士學位 課程까지 올라가면서 고도의 科學과 技術을 연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제 本論에 돌아와서 고등교육이 오늘날 당면하는 세 가지 새로운 變化, 즉 고등교육의 成長, 學術內容의 전환과 社會生活과의 관련에 비

추어 高等教育의 專門性和 專門化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高等教育의 양적 성장에 따르는 專門性和 專門化의 要因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나라의 專門分野別 大學水準 人力的 需要와 供給에서 1980年代 在籍 學生數를 예측해 보면, 이 기간만 하더라도 약 2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大學生數의 증가도 역시 거의 같은 比率로 성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高等教育의 성장 추세에 따라 大學院 최고의 박사학위과정 이수자도 또한 증가할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들 數值들이 당초에 推計할 때 우리 나라의 經濟成長率 10%를 土産로 生産되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高等教育의 양적 成長에 따라 그의 專門性和 專門化에 미치는 요인들은 먼저 기존 教育施設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大學 혹은 初級大學의 教育機關들이 다양한 學生增加 추세에 따라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大學院教育의 강화도 매우 重要하며, 이에 준한 教育內容이 協同과 경쟁적인 體制를 가지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教育行·財政的인 뒷받침으로 教育環境을 개선해야 하며, 授業에 있어서 보다 效率的인 成果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청각 기체들과 學習實驗室들 그리고 프로그램 학습 등으로 教授의 시간을 절약하고 학생들의 個別學習들을 더욱 많이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教授들의 專門性和 專門化의 背景的 知識이나 經驗이 重要한 要因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은 再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現代 產業社會의 급격한 變化로 高等教育의 學術內容은 불가피하게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高等教育이 專門性을 지향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要因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人間의 知識은 증가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技術들을 필요로 하는 요구도 수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副應하여 高等教育의 專門性이 더욱 요청되며, 유능한 科學者와 技術者 그리고 많은 高度의 知識人들을 要求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高等教育에 있어서 새로운 役

割을 창조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教育領域들이 동결되는 현상을 가져오므로 이런 경우에는 才能보다 伸縮性 있는 行動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 傾向을 나타낼 수 있다. 사실 大學의 生命은 周邊社會에서 인정하는 專門性 要求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우리 나라 高等教育의 專門性도 現代 產業社會 構造 안에서 요구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學術內容이 從來의 것으로부터 적절하게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이러한 學術內容의 전환이 知識의 發展, 專門教育, 一般 敎養教育 그리고 學生들의 要請 사이에서 적절한 均衡을 이루어 가면서 成果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高等教育의 專門性이 社會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教育하는 知識이나 技能이 社會의 중추적인 役割과 機能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高等教育의 專門性和 專門化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나라 產業社會의 유지와 성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IV. 高等教育에서의 人間資源 開發의 役割

우리 나라의 經濟活動이 農業위주의 生産體制에서 2次生産業으로, 그리고 다시 3次的 서어비스業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조만간에 後期 產業社會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다. Daniel Bell, Kenneth Boulding 그리고 John Galbraith 등과 같은 學者들은 後期 產業社會의 經濟活動을 주로 서어비스業에다 두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科學과 經營分野에 高度의 知識과 기능을 갖춘 知識勞動者들이 결정적인 役割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後期 產業社會는 점차로 高度의 知識을 갖춘 學者와 科學者들의 役割이 더욱 增大되는 社會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特徵을 보면 2次的 產業社會에서의 生産보다는 전문가들의 社會的인 役割이 확대되기 때문에, 專門人을 양성하는 大學教育은 유능한 人間資源을 개발하는 源泉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大學은 새로운 社會에서

그 役割期待가 한층 넓어지고 나아가 새로운 知識의 開發 普及及 社會改革의 源泉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機能과 役割이 새로운 次元에서 더욱 重視되는 傾向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大學教育을 통한 人間資源開發 問題는 더욱 伸縮性 있고 綜合的인 立場에서 檢討되어야 한다고 본다.

人間資源開發과 관련하여 重要視해야 할 일은 物量的 成長이나 經濟·財政的 側面的 開發뿐만 아니라 社會 各分野에 대한 均衡과 發展 및 정신文化的 側面도 크게 강조되어야 할 立場에 있다. 특히 人間の 潛在的 能力을 開發 伸張 시키는 教育의 側面과 그 專門性的의 向上發展을 위한 國家的 關心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長期的 投資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人間資源開發의 役割은 學校教育뿐 아니라 社會教育과 平生教育의 일관된 체제에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으로 모든 教育과 訓練 그리고 경험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學習을 뜻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現代社會는 科學과 技術의 優越性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로 일어나는 技術變革은 언제나 人間社會의 變化를 수반한다. 그리고 이런 技術變革은 스스로 活性化되어 심한 경우에는 人間에게 控制할 수 없는 精神的 위협으로까지 擴散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社會分화와 專門化하는 社會構造의 多樣化가 또한 급격한 社會變화와 接着되어 人間生活의 質과 內容이 물질에 의하여 이해되고 評價되어 精神文化에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人間들은 變化의 충격을 감당치 못하게 되고 마침내 人間을 그러한 狀況에서 적응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V. 結 論

오늘의 우리 나라 産業社會는 고도의 知識과

技術을 갖춘 專門人들이 産業의 質的 高度化를 성취하는 성장패턴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高級人力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며, 특히 고등교육의 專門性을 요하는 人間資源의 需要는 가속적으로 증대해 가고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未來社會가 아무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고도의 後期 産業社會일지라도 우리의 生存을 위하여 高度의 專門的 知識·技術社會 건설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한 先決方法은 모든 사람에게 適應力을 길러 주고, 급변하는 社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創意的 精神을 배양하는 人間資源開發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高等教育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人間資源開發의 側面에서 자기 自己分野의 專門性을 추구할 수 있는 知識人과 技術人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高等教育은 유능한 人間資源을 개발하는 源泉이므로 고도로 발달하는 現代社會와 未來社會에 대비하여 物質資源의 開發에만 치우치는 傾向을 탈피하여 人間自體의 무궁한 잠재적 資源開發을 꾸준히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建國大學校 教育大學院, 人間資源開發과 教育, 第4回 學術 심포지움, 1981.10.
- Bressel, Paul L., *College and University Curriculum*, 2nd ed., Berkeley: McCutchen Publishing Co., 1971.
- Haskins, Charles H., *The Rise of Universities*,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57.
- Haskins, Hugh, *The Emerging University and Industrial America*, Lexington: D.C. Heath Co., 1970.
- Kerr, Clark, *The Uses of the University*, N.Y.: Harper & Row Publishers, 1972.
- Nadler, Leonard, *Developing Human Resources*, Houston: Gulf Publishing Co., 1970.
- Rudolf, Frederick, *The 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 N.Y.: Vintage Books, Random House, 1962.